

## 새 세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의 특징

홍영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더욱 강렬해지고있으며 자주와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습니다.》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이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가운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으며 그것은 현시기 막을수 없는 시대의 기본흐름으로 되고있다.

새 세기 라틴아메리카에서 지난 세기에 비해 더욱 강력히 전개되는 반미자주화투쟁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 《세계화》, 《일체화》의 간판밑에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으로 감행된 미제의 지배책동을 반대배격하고 사회주의의 기치,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은 일련의 특징을 띠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새 세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적극 따라배우고있으며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이 보다 강화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선군령도따라 새 세기 날이 갈수록 더욱 집요하고 악랄하게 감행되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끄떡없이 사회주의의 기치를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우리 나라의 자랑스런 현실은 세계인민들을 끝없이 경탄시켰다.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인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도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해 격찬하면서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널리 보급선전하기 위한 활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2005년 1월 8일에 《새 세기 자주위업의 앞길을 밝히는 선군정치》라는 주제의 메히꼬련합토론회가, 10월 7일에는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에 관한 베루전국토론회가 진행된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2005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세계대회에서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21세기의 반미자주화위업의 필승의 보검이며 반미자주화의 기치밑에 제국주의나라들의 온갖 지배주의적야망과 전횡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21세기에 반드시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새 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그 실현을 위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연구보급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는것을 표명한 《21세기의 반제자주위업에 관한 카라카스선언》이 채택되었다.

브라질주체사상연구센터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계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신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선식사회주의와 조선반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서기

장이며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인 알바 차베스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65돐을 맞으며 에파도르 과야킬종합대학에 건립된 **김정일**도서관개관식에서 한 연설에서 《오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따라배우는것은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에파도르인민들속에서도 **김정일**동지의 로작을 학습하고 조선의 사회주의를 연구하려는 열의가 더욱 높아지고있다.》라고 언명하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지지와 동경, 그를 따라배우려는 지향은 날을 따라 강화되고있는 가운데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따라배워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큰 힘을 넣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에서 커다란 교무를 받고 그것을 적극 따라배우는 과정에 라틴아메리카인민들속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도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지난 세기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의 기치를 들고나가는것이 쿠바 한나라뿐이었다면 새 세기에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쿠바가 사회주의를 확고히 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가는것과 함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까라과, 에파도르와 같은 나라들도 사회주의를 적극 지향해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도미니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파나마 등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좌익 및 중도 좌익정권이 수립된데 이어 메히꼬, 콜롬비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도 좌익세력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전반적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좌익화의 경향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의 이러한 정세발전을 놓고 이 지역 나라들에서는 《존엄있고 자주적이며 정의로운 라틴아메리카, 21세기 사회주의적인 라틴아메리카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고 평하였으며 한 외신도 《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 〈사회주의의 바람〉이 불고있다. 그 바탕에는 반미주의, 이전시기에 진행된 개혁의 불인정, 다국적회사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등이 깔려있다. 사회주의와 반미주의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나라들의 출현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불쾌한 신호로 된다.》라고 전하였다.

이것은 새 세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미제의 신식민주의적지배와 예속화책동을 배격하고 사회주의의 길, 반미자주화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새 세기 라틴아메리카인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의 특징은 다음으로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됨으로써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키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적극 추진시켜나가고있는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20세기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확대발전하여온 라틴아메리카인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의 주류를 이룬것은 미제의 신식민지배체계를 끝장내고 나라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민족해방투쟁이었다. 이 시기 무장투쟁에 의한 라틴아메리카인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이 전 대륙적인 범위에서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미제의 신식민지배체계는 전면적붕괴의 위기에 처하고 대다수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쟁취할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후 이 지역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새 사회를 건설해나갈수 있는 근본조건으로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새 세기에 들어와 이 지역에서 보다 강화되는 미제의 침략책동을 분쇄하고 이미 달성한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파나마인민의 투쟁이 강화된 결과 1999년에 파나마운하가 이 나라 인민

의 소유로 전환된 후 그를 통하여 경제적장성이 이루어진것, 메히꼬, 파페말라, 쌀바도르, 꼬스따리카,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들에서 《년례인권보고서》, 《자유무역협정》 등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미제의 내정간섭을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적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키고 자주적발전을 이룩할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는것들이 그 대표적실례들이다.

페루대통령은 2013년 리마에서 개막된 제8차 라틴아메리카에 관한 세계경제연단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가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고있는 데 대해 언급하였다.

베네수엘라에서는 2013년말에 이르러 극빈자비율이 1999년의 16%로부터 5.5%로 감소된데 이어 정부가 빈궁청산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2019년까지 나라에서 빈궁을 완전히 없앨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미국팔라주도의 금융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에 새로운 금융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칠레, 볼리비아를 비롯한 많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넣고 자체의 민족경제발전을 적극 다그쳐나가고있다.

오늘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번영하는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하려는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강화되고있다.

새 세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의 특징은 다음으로 그 이전시기보다 지역적인 범위에서의 단결과 협조가 더욱 강화되고 반미공동투쟁이 확대발전하고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기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주로 개별적인 나라나 조직들이 제각기 반미투쟁을 벌였다면 그후부터는 일정하게나마 여러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반미공동투쟁들이 전개되었다. 이미 생활체험을 통하여 미제의 지배주의적책동을 짓부실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단결과 협력에 있다는것을 깨달은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로골화되는 미제의 독단과 전횡, 강권과 일방주의에 대처하여 정치, 군사,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역적인 범위에서 단결과 연대성을 보다 강화하며 반미공동투쟁을 확대발전시켜나가고있다.

현시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미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의 하나는 바로 이 지역 나라들에서의 단결과 협조가 보다 강화되고있는것이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노동자, 농민, 학생들을 비롯하여 정계, 사회계, 학계, 출판계 등 각계각층 인민들이 반미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매개 나라 인민들은 미제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물리치고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을 위한 공동의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 힘을 합쳐 투쟁하고있으며 나라들호상간에도 서로 협조하면서 지지와 연대성을 강화해나가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지향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굳게 단합되고있으며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 반미공동투쟁을 벌려나가기 위한 여러가지 국제기구들을 조직한데 이어 그것들을 실천투쟁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가 2004년 12월에 창설을 발기하고 2006년 4월에 정식 창설된 《우리 아메리카인민들을 위한 볼리바르동맹-인민무역협정》(알바)성원국들이 사회주의를 적극 수호하고 지향해나

며 반미공동투쟁을 강화하고있는것이다.

2007년 4월 28일~29일 기간에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5차 수뇌자회의에서는 지역의 경제적통합을 다그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데서 성원국들사이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정치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새 사회건설문제를 비롯하여 지역문제들을 공동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공통된 립장과 열의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2013년 9월 30일 수리남의 파라마리보에서 진행된 제7차 《남아메리카국가공동체》수뇌자회의에서는 지역의 통합을 다그치고 평화와 안전, 하부구조 및 정보통신발전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공동체성원국들이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단결과 협력을 보다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호소하는 《파라마리보선언》을 채택하였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반미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사실은 미제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저들의 주되는 예측의 도구로, 침략의 수단으로 간주하고있는 아메리카국가기구에서 이 지역 대다수 나라들의 항의와 도전에 부딪쳐 독점적지위를 잃게 된데서도 뚜렷이 표현되었다.

아메리카국가기구에는 쿠바 등을 제외한 아메리카주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망라되어 있다. 기구가 창설된 후 근 70년간 미제는 이 기구에서 독판치기를 하여왔다. 그러나 미제는 2005년 5월 력사상 처음으로 기구총서기선거를 둘러싼 아메리카나라들과의 대결에서 대참패를 당하는 등 이 기구에서 저들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미제는 이러한 현실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에 이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아메리카국가기구총회에서 기구안에 그 무슨 《민주주의감독기구》를 내올것을 주장해나섰다. 미제가 들고나온 이 제안의 기본목적은 라틴아메리카의 《또 하나의 쿠바》로 등장한 베네수엘라를 《민주주의감독기구》의 울가미에 걸어 압살하자는것이였다. 브라질, 메히꼬,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대표들은 일체히 미제의 주장을 규탄배격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 그자체는 지지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걸고 내정간섭적인 제도를 내오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용납할수 없다는 단호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미제의 《민주주의》타령은 이 지역 나라들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으로 하여 맥을 추지 못하였다.

새 세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보다 강화되는 가운데 이 지역 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확대발전하고있으며 그것은 라틴아메리카지역정세의 기본흐름으로, 지난 세기에 비한 새 세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의 새로운 특징으로 되고있다.

새 세기 반미자주화를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은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인류력사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야망과 침략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전진하게 된다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반미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미제의 온갖 지배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앞당겨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다.